



■ 제89회 전남 전국체육대결산

올림픽스타들 대거 출전 기록 풍년... 흥행도 성공

광주·전남 시도 분리 이후 31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신기록 양상과 베이징올림픽 영웅들의 대거 참석으로 흥행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성공체전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10일~16일까지 여수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김택현(23·광주광역시청)이 21년 만에 육상 멀리뛰기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육상과 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져 기초 종목 발전 가능성을 밝게했다는 큰 의미를 남겼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신기록이 육상에서 7개(트랙 4, 필드 3), 수영에서 11개 등 모두 42개가 수립됐다. 1998년 제주도에서 열린

특히 박태환이 등장한 목포 실내수영장, 배드민턴 이용대(20·삼성전기)가 출전한 여수 진남체육관 등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대한체육회도 박태환, 이용대, 이효정(27·삼성전기), 사재혁(23·강원도청), 손태진(20·삼성에스원), 진종오(29·KT) 등 베이징 영웅들의 팬 사인 회장을 마련해 올림픽 열기를 이번 전국체전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베이징 스타들의 잇달린 희비도 대회 내내 팬들의 큰 관심사였다. 박태환은 올림픽 이후 각종 스케줄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였고 역도의 장미란(25·고양시청), 사재혁 등도 자신의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월등한 기량을 선보였다.

그러나 태권도, 양궁 등에서는 경쟁이 치열했던 탓에 올림픽 영웅들이 힘을 쓰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 유도에서도 최민호(28·한국마사회), 왕기춘(20·용인대), 장성호(30·수원시청), 김재범(23·이상 한국마사회) 등 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선수들이 거의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외적인 면에서 대회 주경기장이 있는 여수에서 목포까지 2시간 30여분의 이동시간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전남의 맛깔난 음식과 친절, '친환경녹색체전'을 표방한 17개 시·군에서 선수단에 제공한 지역특산물 제공해 큰 인기를 누리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육상·수영 한국新 쏟아져

기초 종목 대도약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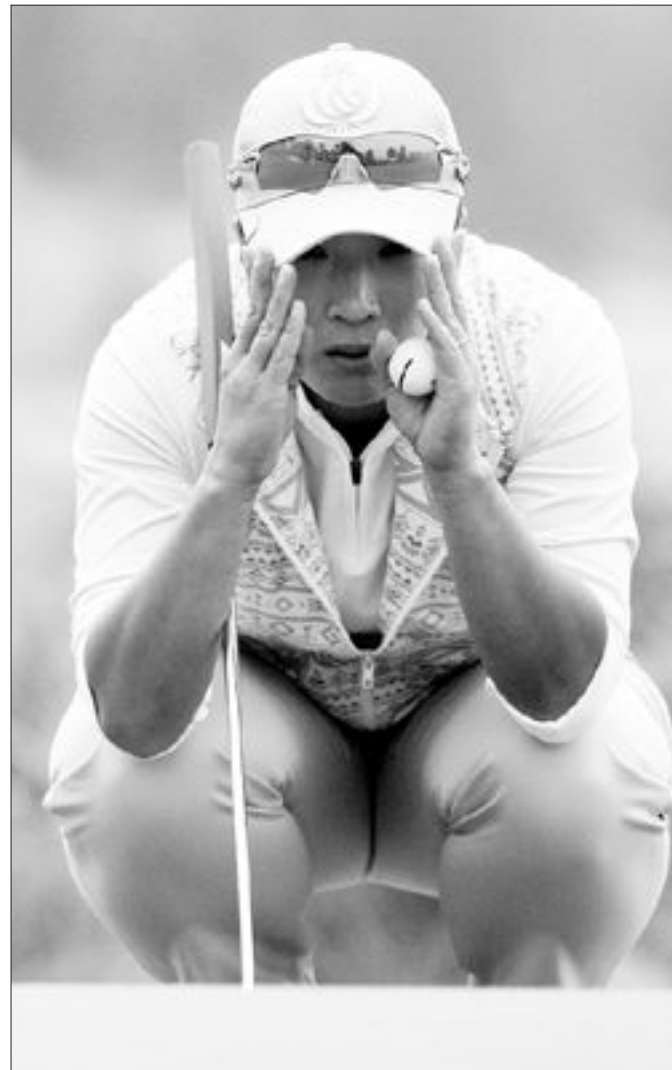
목포~여수 장거리 이동 등

부산 개최로 집중도 떨어져



어떻게 쳐야 할까?

16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골프장에서 열린 제9회 하이트립 여자프로골프챔피언십에서 신지애(왼쪽)와 박세리가 그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선주 첫날 선두

KLPGA 하이트립챔피언십

안선주(21·하이마트)가 시즌 막바지로 가고 있는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힘을 냈다.

안선주는 16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골프장(파72·6천410야드)에서 열린 하이트립 챔피언십 첫날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작년엔 3승을 거두며 신지애(20·하이마트), 지은희(21·휠라코리아)와 경쟁했던 안선주는 올해는 이날 초 열린 삼성금융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뒤늦게 우승을 신고한 뒤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추격자들이 만만치 않았다. 3년 연속 삼금왕을 노리는 신지애는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낚아 4언더파 68타로 2위에 올라 안선주에 1타차로 따라 붙었다. 해외 원정으로 지친 신지애는 "평소보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10야드 정도 덜 나갔다.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쳐 힘들지만 삼금왕을 지키고 내년엔 미국 무대에 가겠다"고 말했다.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김승희(20·휠라코리아)와 박희영도 3언더파 69타로 공동 3위에 자리하며 치열한 우승경쟁을 예고했다. 4개월만에 국내대회에 출전한 박세리(31)는 1언더파 71타로 공동 11위에 올라 그녀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본선행 B조 아직은 안갯속

한국을 비롯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등 강호들이 속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의 본선 티켓 경쟁이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하다.

팀당 2-3경기씩을 치른 현재 B조는 한국과 사우디, 이란, 북한 등 네 팀이 승점 4점씩을 챙겨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만,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홈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둔 한국이 골득실(한국 +3, 사우디, 이란 +1, 북한 0)에서 앞서 선두로 나섰고, 사우디와 이란은 다득점까지 갈아 공동 2위로 순위가 갈렸을 뿐이다. 공동 선두에 올랐던 북한은 이란 원정에서 1-2로 패해 4위로 떨어졌다.

B조에서는 2차전 뒤 사령탑을 교체하고도 최종예선 3전 전패를 당한 UAE만이 조 2

한국·북한 등 4개국 승점 4

득·실점에 희비 갈릴 수도

월드컵 축구 2차 최종 예선

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 확보가 가늠불해졌을 뿐이다.

최종예선 조 추첨이 이뤄졌을 때 '죽음의 조' B조에서는 한국, 사우디, 이란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북병으로 여겨졌던 북한까지 레이스에 가세해 초반부터 순위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북한은 한 경기를 더 가졌지만

UAE, 이란 등 쉽지 않은 중동 원정경기를 일찌감치 두 차례나 치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리그 순위는 승점-골득실차-다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이때까지도 순위가 갈리지 않으면 해당 팀 간 승점-골득실차-다득점을 따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첨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허정무호가 UAE를 세 골 차로 대파한 것이 더욱 기분 좋게 한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한국은 당장 다음 달 19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 내년 2월11일 이란과 원정 2연전을 치러야 한다.

허정무호로서는 최종예선 최대 고비다. B조 순위 싸움의 윤곽이 드러날 중요 일전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한국, 일본 꺾고 결승 진출

2차 축구연맹 U-16 선수권

한국 16세 이하(U-16) 남자 축구대표팀이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선수

권대회에서 '속적' 일본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6년 만에 결승에 올랐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MHSK 스타디움에서 끝난 대회 준결승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김동진(안동고

의 동점골과 이동녕(동북고)의 역전 결승골로 지난 대회 챔피언 일본에 2-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3-0으로 제압한 이란과 18일 타슈켄트 파크파크 스타디움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월드시리즈 진출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LA 다저스를 제물로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올랐다. 필라델피아는 16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7전4승제) 5차전에서 다저스를 5-1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리그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월드시리즈 행 티켓을 따냈다. /연합뉴스



17일(금)

- ▲베이저리 AL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 (템파베이 : 보스턴)(09 : 00·Xports)
- ▲LPGA 카팔루마 LPGA 클래식 1R (09 : 30·SBS골프)
- ▲KLPGA 하이트립 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 2R(12 : 00·SBS골프)
- ▲SBS 메리트 솔로모 오픈 2R(14 : 00·SBS골프)
- ▲국제 평화마라톤(13 : 50·MBC)
-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 : 삼성)(17 : 50·SBS스포츠·Xports·MBCE-SPN·KBSN SPORTS)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금일수산물 전남 완도군 죽청리 995 전북전역특판 4개월분 99,000 1개월분 5,000 선물세트 2박스 이상 30% 할인 ☎(061)228-8684	새마을회마차 담양군 각리리 새마을금고 동진병원앞 포장매달린분 연회석원비(80석) 대표 채종순 ☎(061)382-1624	세종당 담양군 각리리 복음의원 건너 귀금속 시계전문점 대표 정순님 ☎(061)381-3900	천지인원목가구 담양읍 양곡리 소방서맞은편 수제목가구·관악향나무·실용·인테리어·대형가구 대표 조원찬 ☎(061)381-7331	119컴퓨터당점 담양읍 각리리 우체국 맞은편 각종컴퓨터·AS·세탁·PC·주방기기·네트워크·소프트웨어 대표 박명구 ☎(061)383-6300	중심사물손바닷가재 동구 문림동 중심사물바닷가재 2005년 광주시·MBC맛집선정 대표 한경우 ☎(062)227-0644	
자바 동구 황금동 제일극장 위 생과일주스전문 커피,파스타 대표 이병노 ☎(062)234-9799	짜리골식당 동구 광동동 카톨릭센터 뒤 순대국밥,마리국밥,콩나물국밥 대표 김기창 ☎(062)222-0289	송죽골삼밥 동구 광동동 79-8 보쌈전문 대표 오정숙 ☎(062)222-7004	곰방뿔재삼겹 남구 벽동1동 동진생활용품 옆 단체손님 환영 대표 이상형 ☎(062)676-1233	빨대포장마차 광산구 문남동 주공7차지대 먹자골목내 빵·떡·과자·김밥·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대표 정태군 ☎(062)954-4757	에지원플라워 동구 지산동 범일점 앞 경조·화환·동상·인형·꽃다발·화환·식물 꽃·관상·꽃장·전국꽃배달서비스 ☎(062)225-0928	열린종합공구 북구 각동동 동명하이츠거리 GS주유소 맞은편 공구,엔지,수리 및 임대 대표 정완채 ☎(062)265-9723	한울이용원 서구 평천사동 동사무소 옆 귀송원대리 옆 컵·트레이·접시·접시·접시·접시·접시 대표 김장호 ☎(062)362-8051
마코트 동구 금남로2가 금남공원내 신동아극장골목 퓨전다자만두·돈가스·피자·떡볶이·떡볶이 대표 이경희 ☎(062)222-1551	맛삼 동구 황금동 문림사거리 천변쪽으로 좌측10m 이구점,김밥,맛있는삼겹살전문점 대표 김경희 ☎(062)226-4133	생태(춘자) 동구 장동 광주여고 앞 생태탕 전문점 대표 정태입 ☎(062)233-5752	삼오골목 동구 금남로3가 카톨릭센터 뒷골목 새마을회 옆·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대표 최영태 ☎(062)224-3575	난과사랑 동구 소태동 지하철 3번출구입구 한국 춘란 전문점 대표 조동락 ☎(062)226-8330	SM인터내셔널 서구 매일동 유봉센터 15동 228호 각종생필품·관악향·중주·수입대형·인테리어·홈도 도·소재·판매·인테리어·사무용품·경리·사무용품 ☎(062)603-2726	전주영양물솔밭 서구 평천동 광명하이츠거리 농협건물 1층 하이포크삼겹살,영양물솔밭,부채매김밥 원장짜개,동태탕,김치탕 ☎(062)381-9235	하늘먹은혹염소 북구 용봉동 미래도모이@입구 흑염소요리전문점·수육전문점,떡볶이 대표 이상수 ☎(062)523-9665
갤러리어클릭 동구 충장로2가 학성회관후문 입구 명품시계 주얼리 대표 오정성 ☎(062)233-2251	연안부두 북구 북구동 1번대 새마을회 옆의길 사거리 회무엇고래·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대표 박경림 ☎(062)653-9289	이경연대체육회피부미용 서구 화정 3동 스타빌딩 403호 피부미용·피부관리·피부관리·피부관리·피부관리 대표 이경연 ☎(062)384-2231	중국전통맛사지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DC메이시 2층 귀뚜라미·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본업소는 건전합니다 ☎(062)264-9888	자모의원 서구 생촌동 주공@2층 203호 12년 경력·신체·신체·신체·신체·신체·신체·신체·신체 비만·비만·비만·비만·비만·비만·비만·비만 ☎(062)375-5554	합평우시장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옆 먹자골목 생고기·김밥·인형·떡볶이·떡볶이·떡볶이 담양·담양·담양·담양·담양·담양·담양·담양 ☎(062)385-9292	서진장어 서구 화정4동 동사무소 맞은편 먹자골목 봉정·장어·장어·장어·장어·장어·장어·장어 단체 예약 손님 환영 ☎(062)372-0939	굽네치킨(화정점) 서구 화정동 영주교 옆 이명원대리후문 앞 후라이드·치킨·치킨·치킨·치킨·치킨·치킨·치킨 ☎(062)384-9288